

기획서

‘물과 흙의 예술제 2012- 전환점’

【기획취지】

‘전환점’을 테마로 한 ‘물과 흙의 예술제 2012’를 개최합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사고는 일본인들에게 있어 기존의 사고방식과 삶의방식을 되묻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예술제에서는 ‘전환점’을 축으로 삼아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만드는 새로운 작품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술제를 통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있게 해준 선인들의 노력과 그 결과를 되돌아보며, 앞으로를 살아갈 우리들의 장래에 대해 고뇌하고 대화하는 모든이들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로 제 2 회째를 맞이하는 우리 예술제는 니가타에서 오랜기간 동안 문화활동과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오가와 히로유키씨가 총감독을 맡고, 각자 다른분야에서 활동중인 4 명의 디렉터들이 협력하는 체제로 진행합니다. 특히, 예술제의 주된 의도는 예술가들만의 작품이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느끼는 예술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시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특성과 기억,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서 그들만의 에피소드를 이끌어내는 작품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의견의 충돌과정을 거치면서도 예술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서로간의 열정을 쏟아내는 것. ‘특정지역’에 새겨진 역사의 의미와 인간의 육체를 활용한 라이브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위해, 미술, 무용, 댄스,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 국내외를 불문하고 활약중인 예술가와 함께 이번 예술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니가타는 자연이라는 풍요의 혜택을 누려온 반면, 반복되는 수해로 인한 피해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예더해 1960 년대의 니가타 미나마타병이라는 공해로 인한 ‘인재’까지 경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석기시대로부터 계승한 조몬문화와 그후 발전해온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와 인재 등에 맞서 싸워온 니가타 사람들의 활동과 그 밑바탕에 흐르는 감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고, 니가타에 한정된 에너지가 아닌 모든 곳에 전파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성을 이끌어 내고 싶습니다.

이번 예술제가 시작되기 전인 2011년 겨울부터 자연과의 공생을 테마로한 심포지엄, 어린이 프로젝트, 좌담회 그리고 시민들이 기획한 다양한 이벤트를 1년동안 단계적으로 진행해 니가타와 이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니가타의 문화의 재인식을 통해 보다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물과 흙의 예술제 2012 - 전환점’의 기획의도는 예술가와 시민이 ‘지금 현재’를 풍부한 감수성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다시 다양한 표현과 행위로 재창조하고, 예술제를 바라보는 감상자만이 아닌 예술제에 연관된 모든이들이 ‘우리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스스로의 ‘전환점’을 개개인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개요】

사업명 : 물과 흙의 예술제 2012 - 전환점

영어명 : Water and Land - Niigata Art Festival 2012 : Turning Point

기간 : 2012년 7월 14일 (토) - 12월 24일 (월·공휴일)

회장 : 시나노가와 강 하류를 중심으로한 시내 각지

총감독 : 오가와 히로유키 (이벤트 기획자)

디렉터 : 사토 데쓰오 (미술교육연구자) , 다케히사 유 (큐레이터) ,
단지 요시히코 (미술가) , 호리카와 히사코 (무용가)

주최 : 물과 흙의 예술제 실행위원회

조성 : 재단법인 문화·예술을 통한 후쿠다케 지역진흥재단

【사업내용】

- ◆ 예술프로젝트 (초청, 공모)
- ◆ 시민프로젝트
 - ① 시민들이 기획하고 실시하는 프로젝트 지원
 - ② 어린이 프로젝트를 대학 및 교육관계자와 연계해 기획/운영
- ◆ 심포지엄
 - ‘자연과의 공생’을 테마로, 다각적인 시점에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길을 찾는 심포지엄을 4회 개최.
 - 기획·종합 코디네이터 : 오쿠마 다카시 (니가타대학 명예교수·NPO법인 니가타수변모임 대표)
- ◆ 기타
 - 예술제를 개최하기 이전부터 디렉터와 시민서포터가 기획한 강연회, 좌담회 등 다양한 소규모 이벤트 실시.
 - 그 일환으로서 이번 예술제를 포함해 최근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아트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예술과 공공의 관계성에 대해 대화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기획을 만듦.

【프로필】

오가와 히로유키

이벤트기획자, NPO 법인 문화현장 대표. 1962년 니가타현 니가타시(구 니쓰시) 출생, 거주. 현대 미술을 주로 다루는 민간운영 미술관(창고미술관 ‘点’) 근무 등을 거쳐 1992년 이벤트 기획자로서 독립했다. 그후 ‘문화 현장’을 설립하고 니가타의 독자성을 살린 각종 문화이벤트 기획 제작에 힘써옴. 2004년 NPO 법인으로 이행. NPO 법인 ‘니가타에야’ 이사, NPO 법인 에치고 쓰마리 사토야마 협동기구 이사, 니가타시 미술관 운영협의회 위원. 영화 ‘아가에 살다’제작위원회 위원, 아가노강 지역 필드 유지업사업(니가타현) 종합 프로듀서, 니가타 정령시 탄생기념 ‘봄, 축제’실행위원장, 물과 흙의 예술제 2009 시민 서포터즈 회의 대표, 물과 흙의 예술제 2012 구상검토회 좌장 등 역임. 편저로 ‘되살아나는 사카구치 안고’, 니가타 문화비평지 ‘가제다루마’등이 있다.

사토 데쓰오

미술교육연구자, 니가타대학 교육학부 교수. 1958년 가가와현 출생, 니가타시 거주. 쓰쿠바대학 예술전문학군(예술학) 졸업. 쓰쿠바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예술학 연구과 중퇴. 2003년부터 현직에서 미술교육학 지도. 생태학, 이미지론, 사회학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시점으로 미술과 미술교육의 기초탐구. 주요 논문으로는 ‘재현=표상비판으로서의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1992), ‘미술공간, 미술교육 그리고 에로스’(1998), ‘주체의 경계를 넘는 - 어포던스, 리듬, 미술교육’(2003)

다케히사 유

큐레이터, 미토 예술관 현대미술센터 학예원. 1976년 오사카후 출생, 이바라키현 미토시 거주. 게이오대학 종합정책학부 졸업후 사진 스튜디오에서 근무한 후 2002년 영국유타. 런던대학 골드스미스 컬리지 대학원 과정 크리에이티브 큐레이팅 수료. 프리랜서 큐레이터로 전람회 기획 등에 관여. 2007년부터 현직장. 2009년부터 20대 - 40대의 디자이너, 아티스트, 직장인, 학생등이 설립한 ‘MeToo 추진실’회원. 공사를 불문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예술과 사회, 예술과 커뮤니티의 관계성, 예술의 공공성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주요 전람회로는 ‘레크리에이션 - 영상이 보이는 ‘다른 하나의 세계’, ‘오토모 ‘양상볼즈 2010 - 공진’, 주요 기획 프로젝트로는 ‘양상볼즈/퍼레이드’등이 있다.

단지 요시히코

미술가, 니가타대학 교육학부 예술환경강좌 준교수. 도쿄예술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회화) 수료. 1960년 후쿠시마시 출생, 니가타시 거주. 1998년부터 현직. 1985년부터 도쿄 니혼바시 등의 화랑에서 전시회 개최후 2003, 2006, 2009년 ‘대지의 예술제 에치고 쓰마리 아트 트리엔나레’에서 작품 발표. 또한 2009년 물과 흙의 예술제에서는 <CIRCULATION>, 2010년

세토나이 국제예술제에서 <바다를 잇는 것>을 발표했다. 그리고 2007년, 니가타현립 근대미술관에서 프로젝트 <배라는 타임머신 백년의 꿈에서>를 실시. 2008년에는 요코하마 BankART에서 '개강 5개 도시 모가모가를 찾아라 프로젝트'에 참가. 2001년부터 격년으로 니가타시 우치노지역에서 아트프로젝트 '우치노 DE 아트'를 프로듀스.

호리카와 히사코

무용가. 1955년 니가타시 출생, 니가타시 거주. 미학교(美学校) 고스기 다케히사음악교장에서 공부. 즉흥춤을 위한 신체를 쫓아 무용가 다나카 민씨에게 사사받고 무용을 시작함. 1978년부터 1998년까지 신체기상연구소, 무용학원, 스페이스 planB, 신체기상농장 등 다나카 민씨의 활동에 모두 참가. 농업생활은 그후의 생각방식과 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침.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아트 캠프 하쿠슈(하쿠슈 여름 페스티벌)' 실행위원으로 운영에 참가. 1998년 니가타시로 이주. 그후 니가타시를 거점으로 무용활동, 해외공연 등 다수. 니가타의 거리, 쌀창고 등 각지에서 무용회 개최. 2006년 '전통적인 봉오도리 춤을 응원하는 모임'을 설립하고 니가타시의 봉오도리를 찾고 소개하는 등 그 부흥에 힘쓰고 있다. 2009년 '물과 흙의 예술제'에서는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야외 아트작품전시장에서 12번의 독무 공연 개최. 그외에도 유치원 원생들과의 도론히 무도단, 사자춤 가구라 마쓰리, 시민극단 민화극 등 지역에서 만든 시민 프로젝트에 참가.

【니가타시의 지리적 특성】

일본에서 가장 길고 수량도 풍부한 시나노가와 강과 수량면에서 3위이자 강하류부의 강쪽에서는 일본 최대인 아가노가와 강의 2개의 하구가 있다. 일본 서해안측 교역, 원양어업으로 번성한 항구도시(현재의 중심 시가지)는 시나노가와 하구에 위치한다. 17세기 초반까지 아가노가와 강은 지금의 하구부근에서 커브를 틀어 시나노가와 강과 합류해 하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훨씬 컸다. 해안을 따라 생긴 사구들은 이 두개의 큰 강들이 옮겨온 토사를 쓰시마 해류 등의 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자연 사구에 막혀 갈 곳을 잃은 대량의 강물이 크고 작은 연못과 습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무수히 만들어진 습지들은 천연 수로로 서로 이어져있었다. 니가타항은 일본 서해안 교통과 크고 작은 하천과 수로망으로 연결된 내수면 교통의 연결점이었다. 17세기부터 간척사업이 진행되어 근대에는 내륙부 습지에 배수로 배수기장 등이 만들어졌고 저지대 습지들이 드넓은 니가타평야로 바뀌어갔다. 니가타는 일본의 대도시 중에서 시가지에 비해 농지면적이 월등히 넓다. 시내 각지에는 일찍이 강을 따라 만들어진 항구마을들이 여럿 존재한다. 당시 습지의 모습이 남아있는 도야노가타, 후쿠시마가타, 사가타 등도 아직 현존하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두개 강의 하구지역에는 공업지대가 형성되었다. 서남부에 위치한 가쿠다야마 산에는 고대로부터 산악신앙의 본거지였던 야히코야마 산도 연결되어 그 주변부에는 지금도 옛 신앙과 관련된 사적들이 다수 남아있다.

【'물과 흙의 예술제'】

2009년부터 시작. 제 1회는 기타가와 프람씨가 총감독을 맡았다. 물과 흙과 펠라야 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온 니가타의 특성을 이끌어내고, 이와 관련된 역사와 기억, 문화를 탐구하는 다양한 작품을 늪, 호수 및 배수장 등 옥외시설과, 미술관이나 민간 가옥 등 시내 각지에서 예술제를 개최하였다.